

김·문 역사관·대북정책 잇단 ‘이념 충돌’

〈무성〉 〈재인〉

근현대사 재평가·‘5·24 조치’ 해제 놓고 상반된 입장

보수·진보 대표하며 차기 대선주자 입지 다지기 분석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면충돌했다. 역사관과 대북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각각 보수와 진보의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각 영역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과 한미동맹 강화의 공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 학생이 부정적 역사관으로 쓰인 역사교과서로 우리 현대사를 배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란이 첨예했던 지난 2013년 당내 모임인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주도하며 정치권에서 보수적 시각을 전파했던 행보의 ‘제2라운드’를 재개한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방미 중에는 ‘낙동강 전투 영웅’ 윌턴 워커 장군의 묘역에 큰절을 올리고,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모두 참배하길 했지만 확연히 근현대사의 평가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김 대표는 광복 70주년 각종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이 나라의 구조, 모든 것의 열쇠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취임 후 줄곧 ‘안보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던 문 대표의 경우 최근 들어 다분히 진보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문 대표는 17일 ‘고(故)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으며, 앞서 13일에는 광복절 첫 행보로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당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누락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예우하며 그의 건국 공로를 부각시키는 김 대표와는 달리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진보 진영의 역사 인식을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로서 평생을 민주주의에 바쳐 이루려고 한 게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이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 위기에 평화 외교마저 위태로운 지금 김 전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여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양할 시대 이후 대북 제재 방침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폭점으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병 장군을 상기하고,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생각하면 그러한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하며 대북 정책에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견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수 상향화하고 있다.

반면 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빅 딜’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 대표가 각각 보수와 진보의 ‘이리론’으로 자리매김에 나서며 대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머쓱한 김·문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로 머쓱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與 “9월에”·野 “10월에”...국감 일정 합의 못해

19~20일계 원내대표 회동 조율

여야는 17일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수석부대표의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 오는 19~20일계 원우철·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 이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관련해서 9월 추석연휴 전

에 하는 방안, 추석을 기점으로 분리하는 방안, 10월에 하는 방안 등 3개가 있는데 조율을 못 끝냈다”며 “내일이나 모레 만나 접점을 찾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의원 및 관계자, 정부·기관들이 국감을 언제 하는가에 따라 준비기간이 있으니 이른 시일 내 합의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28일께 한 차례 본회의를 여는 데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양당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듭 강조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2014 회계연도 결산, 이달 31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은 전방 장병이나 오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의료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도 8월 임시국회 본회

의 때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23일까지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 10월과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9월에는 당면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국감은 시간을 두고 준비해 10월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급 논의 결과 이번 국감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지난 4년을 점검하는 입장이라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추석 전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급박할 것 같고, 추석 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문재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지지”

“5·24 조치해제 언급 등 적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광복 70주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문 대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민심’이라며 주류 진영에 각을 세웠던 박 전 원내대표의 행보를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트위터에 “일부에서 당 대표보다는 대권후보의 회견 아니냐고 비난을 전제로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지만 5·24 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북한에서 경제



를 찾자는 회견은 우리 당론 및 저와 완전 일치한다”며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앞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북한의 목란지리 도발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의 잘못은 일원반주도 않은 채 문 대표 발언을 트집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승용 “여수~제주 항공 주 5일 운항”

대한항공, 증편 요구 수용

오는 10월부터 여수~제주간 항공노선이 주 5회 운항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17일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여수~제주 노선을 주 5일 운항하고, 여수~김포 노선을 2편 감축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대한항공이 여수~김포 간 운항편을 일방적으로 2편 감축하려하자, 이용객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대한항공이 요구를 수용해 여수~제주 항공편을 3회 증편하고 10월 말에는 여수~김포 간 저녁 시간대 항공편 증편도 적극 검토



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금요일과 일요일만 운항하고 있는 여수~제주 노선을 10월부터는 월, 수, 금, 토, 일 주 5회로 늘릴 예정이다.

주 의원은 “대한항공 측이 수요 증폭을 이유로 여수~김포 간 항공편을 감축하는 것은 아쉽지만 여수~제주 항공편이 증편되면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박영선, 새정치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임명

17대 때 금산분리법 통과 주도

한때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17일 재벌개혁의 책임자로서 여야 입법전쟁의 전면에 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 전 원내대표를 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선 의원인 박 전 원내대표는 초선이던 17대 국회 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금산분리법 통과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 특히 금산분리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삼성과 대림각을 세우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은 2004년 국회의원이 된 후 제일 먼저 제기한 이슈인데 10년이 지나서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롯데사태 등 일련의 상황을 통해 재벌개혁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체계의 로비가 아파어미해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에 필요한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